

한국은행, 서울역, 제일은행본점 또는 용산우체국, 等等의 四,五十年前에 세워진 建築들을 지나며 보노라면, 그야말로 応甲古考學的인 모방을 折衷한 前近代的인 旧式建築物들에 지나지 않으나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무게가 있고, 信賴感마저 지니고 있는 듯 느껴지며, 마치 均衡잡힌 古 초가집이나 그림에서 보는 “크래식·카-”를 볼 때와 같이 稀少價值的인 것보다는 무엇인지 모를 藝術的인 鄉愁마저 느끼게 한다.

비록 늙은 “스타일”이긴하나 現代建築의 非情한 모습과 無識한 一面보다는 훨씬 포근하고 建築本然의 高姿勢를 지니고 있는 듯싶어 다시 한번 우려려 보며 아늑한 懷古感마저 느끼게 한다.

이러한 中古建築物들은 大概 그런대로 建築의 本質的인 것은 完全히 지니고 있으나 現代的인 樣式觀과 經濟性에 旧式이라는 명목아래 無慘히도 敗背되고 中斷된 뒤 不機能이라는 罪目까지 加重시켜져 그들의 歷史的인 保存마저 거부당해가며 점점 消滅되어가는 實情이 왜그런지 몹시 섭섭하고 애석하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일들은 近代人들의 思考의 變化가 그 原因인지? 또는 흔히 말하듯 建築이란 一種의 記念的存在가 아니라 合目的인 人間의 容器로서 云云하는 式的 現代的 思考方式과 現代生活의 特徵인 彈力性을 지니기 爲한 基礎를 만들 수 있도록 充分한 融通性을 지녀야 한다는 確信이 생겨서의 所謂 흔히 쓰여지는 世代交贊의 變形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近年 서울시 美觀地區調整委員會에 許可申請을 提出한 圖面을 各界 藝術人, 言論人과 同席하여 建築士라는 立場을 떠나 第三者的 立場에서 보니 너무나 寒心스럽고 어떤 때는 얼굴 붉어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어떤 圖面은 基本的인 平面도 構造計劃도 모르는 設計가 있는가 하면, 建築主들에게 罪스럽기 짝이 없는 小兒의 그림, 같은 圖面에 마치 화류계 여자들의 도깨비化粧術을 連想케 하는 無識이 所謂 一級建築士라는 도장이 찍힌 作品? 으로, 各界人士들과 같이 감상하게 되니, 一般이 우리 建築士들을 어떻게 보는지 눈에 보이는 듯 부끄럽기만 하였다. 이런 作品? 들을 보면 그야말로 內容의 解決도 合目的性도 없이 그저 外形만의 建築. 억지로 색다르게 한, 所謂 제판에는 獨特한 外觀. 勾配가 맞지 않는 지붕, 비가 새어도 外形만 特異하면 된다는 式的 住宅들의 流行. 추너높이보다 훨씬 높은 지붕의 非合理的 空間虛實과 經濟浪費. 집장사들의 無識한 金力에만 從屬寄生하고 있는 建築士들의 作品? 果然 이런 建築도 藝術과 關聯지을 수 있느냐는 問題가 눈앞에 떨어질 것 같다. 이러한 怪變形인 建築들의 平面을 보면 大概가 階段하나 便所平面까지도 제대로 못깨우친 所謂 技術者라야 適當한 建築士들의 設計들로 마치 公害中毒

에 變形되 가는 自然界 또는 魚具類의 꾸부러진 奇形化를 連想케 하는 建築의 타락성 같게만 생각이 된다. 이러한 一連의 退步現像은 建築門外漢의 一一般社會를 建築士들이 우롱하며, 同時에 相對的으로 建築士들에 對한 一般의 不信感을 자아낸 結果인지도 모른다. 自己만의 出世慾을 서 두르는 나머지, 自己의 조그만 才能과 淺識한 我執만으로도 처럼 胎生된 現代建築樣式의 發育을 저해시켰으며 自己才能 崇拜때문에 自己 “모뉴먼트” 때문에, 流行때문에, 特出한 作家風의 모방 때문에, 國展이나 建築作品이니 하는 것 조차 거부, 非協力하는 建築士들때문에, ... 等等의 이유로서 眞正한 現代建築의 健全한 趨勢를 發展시킬 수 있었던 여러번의 좋은 機會마저 뒤지게 한 結果까지 만들고 만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때문에 建築의 後進性과 建築도 藝術이나? 技術이지!! 라는 式의 試鍊과 錯誤까지 가져오게 한 그 큰 責任도 아울러 짊어지 어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建築의 本質의 인것은 잊은채, 外形만의 참신하고 자극적인 建築構想에만 注力하던 대신에 建築의 참된 內實을 좀더 깊이 있게 構想研究하는 것을 第一本題로 再設定지어야 할 것이다. 몇몇 建築士의 대수롭지 않은 “이미테이션”의 成果나 流行的樣式에만 사로잡힌 安易한 外形의 “아이디어”가 그 建築안에서의 人間生活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는 없을 것이 分明하다. 오히려 그러한 輕薄한 虛偽가 累積된 地域에서는 美的 全体性마저 잃게까지 되어버려 크게 是 地域社會惡의 罪科까지 犯하게 되는 結果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例는 禾谷洞, 其地等지의 집장사들과 共謀한 住宅集團地域 設計의 現狀과 멀리 祖上들이 지은 아늑한 옛 초가집 마을을 對照的으로 想像해 보면 곧 理解가 갈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 建築士들은 언제나 人間社會에서 의 가장 創造的이고 앞장서야 할 全体의 一部分으로서 항상 높은 自負心을 가지고, 小我的이고 정의 根性을 버리며 언제나 겸손한 態度로 社會性的인 建築思考에 對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社會的인 建築理念을 지니고 일하는 建築士의 作品은 自己中心의 人氣人的 建築士들의 作品과는 아주 對照的으로 훌륭한 內實을 지닌 作品으로서 現代建築의 뒤떨어진 간격마저 短縮시킬 수 있는 役軍이 될 것이다.

個個人의 趣好나 思考方式과 조그만 成功慾, 알은 宜伝術(藝術은 宜伝을 해서는 안되게 되어있으므로, 겸잡은 高次的인 建築人은 이를 삼가야 함)로 有名을 假裝해 가며 建築主들에게 誤導와 強要를 일삼아 唯我獨尊格인 作品을 내세우는 建築士, 그리고 남의 資金을 無責任하게 亂用해 가며 自己

만의 “모뉴먼트”를 만들어 내려는 建築士, 이들로 因하여 派生되는 建築士 全般에 미치는 社會的인 不信은 없는지? 서로 서로 自省하고 是正해야 할 때가 온것 같다. 그렇다고 門外漢의 인 建築主의 意圖만을 全的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無識한 慾心쟁이 집장사들의 不當한 要求로 지붕의 虛飾과 같은 住宅의 本質을 無視한 慾求는 이를 是正시키기 爲하여 꾸준히 說得, 善導하는 努力을 아껴서는 안될 것이다. 同時에 建築主의 要望이 무엇인지를 깊이 理解하고 誠意있는 協助로 技術的 代行과 藝術的 創案이 建築主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信賴할 수 있게 納得이 가야 하며 設計는 勿論 집이 完成될 때까지 建築主의 意圖를 詳細히 診斷하는 것도 꼭 實行되어야 할 必須條件이다. 그러므로 病者가 醫師에게 自己生命을 맡기듯이 우리들도 建築主로부터 信賴받을 수 있는 建築士가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努力은 非單 藝術, 構造 經濟의 分野는 勿論이고 또 이 三分野를 包含한 社會通念上으로도 努力은 꼭 必要한 것이다.

萬一에 여지껏과 같이 여러가지 小根性만 고집하고 참된 建築이 앞으로 指向할 方向感覺마저 잃고, 그저 自己趣味的으로 손재주로만 되는대로 技術的인 圖面이나 그려 내던지고... 싸구려 技術小売商으로 格下되어가며 內容도 思想도 社會的인 貢獻도, 그렇다고 致富도 못해가며, 집장사들의 심부름꾼의 許可圖書나 作成하는 所謂 代書房의 純全한 技術者로 自己向上을 爲한 藝術的인 眼識의 工夫나 努力도 게을리하고 建築主에게나 그 모든 責任을 회피하려드는 建築士가 아직도 있다면 그런 少數인 사람들도 때문에 훌륭한 建築士 全般이 희생되고 있다는 事實을 銘心해야 하겠다. 이러한 建築士들이 야말로 目下 審議되고 있는 技術者中에서도 三, 四流의 建築技術資格所持者밖에 못되는 者들로 여지껏 우리나라 現代建築界를 흐리게한 張本人들이라 規定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建築은 어디까지나 建築士自身의 確信과 建築主에 指導 建築主의 理解度 如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建築主 또는 一般社會의 評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藝術的인 創作을 하는 建築士의 確信은 人間全體生活에 貢獻할 수 있는 名譽로운 天職으로 自負할 수 있으므로 技術者로 轉落되지 않게 社會에 貢獻한다는 確信으로 빛나는 前進의 기바라 마지않는다.

筆者：會員, 姜明求建築設計事務所長